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8년 1월 26일(금) (음력 12월 10일) Пятница 26 января 2018г. № 3(11677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1월 25일, <대학생의 날> 기념

1월 25일은 러시아에서 <타치아나의 날>이다. 이날은 1755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 설립일이자 러시아 대학생의 명절로서 축하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러시아 대학생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게 되었다.

이날에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여러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까운문화회식 공원에서는 공원 내 코스모스 광장에 위치한 스케이트장에 대학생들을 초대했다. 대학생들과 '타치아나'란 이름을 가진 여성들에게는 무료로 스케이트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러시아 나의 역사> 박물관 측도 대학생들을 초대하여 견학 코스를 준비한 가운데 박물관을 방문하는 입장순서대로 25명의 대학생들에게 선물도 준비되었다.

▲ 사할린예술전문학교 학생들의 모습.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 주 금융공사들의 협조로 임대아파트에 공공분야 종사자들 633가구가 입주

섬지역 주민들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주정부가 설립한 사할린 금융공사는 2016-2017년간의 업무를 총결산했다. 그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홀스크, 포로나이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티몹스코예, 스미르니흐에서는 다세대 임대아파트 20동(총 면적 3만4781m<sup>2</sup>)을 준공하고 분양했다. 임대아파트에 633가구가 입주했는데 입주자들은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 교육, 건설, 보안 분야를 비롯해 지방자치체 기관, 청년 전문가들이다.

현재 주 금융공사는 주내 13구역(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 홀스크, 포로나이스크, 네웰스크, 아니와,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토마리, 코르사코브)에 주택 37동(총 1010세대)을 건설하고 있다. 임대료가 일반시가보다 두 배 정도 저렴한 까닭에 주택 입주

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다. 또한 많은 공공예산 분야의 직원들에게는 직장에서 일부 관리비를 보상에 주고 몇 년 후에는 대출 혜택을 받아 임대받은 집을 매입할 권한도 주어진다.

또한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금융공사는 사할린지역에 주택건설조합 조직을 도입하여 현재 주내에는 이와 같은 조직이 4개가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위해 대출이자도 감면된 0%부터 7%까지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의 212가구가 이자감면 혜택 속에 3억4300만 루블리를 대출했다.

금융공사는 주택공사만 아니라 주의 요청으로 라즈돌노예촌 낙농장(소 1000마리) 건설에 나섰고 후보건부의 요청으로 노위코워, 노위에, 파루스노예 촌들에서 조산원을, 아르기-파기에서는 소진료소 공사를 맡았다. 사할린 금융공사는 모든 사업들이 설정된 기간 안에 성취되었다고 전했다.

### 연초부터 수산업협동조합 업체들 명태 3만6천여 톤 어획

1월 24일 현재 사할린주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들이 명태 3만6000여톤을 어획했다. 사할린주 수산업협동조합 파벨 플로투슈킨 부회장에 따르면 연초부터 호호츠크 명태잡이에 몇몇 수산업체들의 어선 18선이 어획에 나서고 있다. 효과적인 해양 탐사와 적합한 기후의 조건, 선원들의 전문적이고 민첩한 활동으로 해양 자원을 풍성히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할린 수산업협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조합은 사할린-쿠릴의 배당지역에서 어류와 해산물을 풍성히 공급하고 있다.

### 단신

#### 트루트네브 부총리, 선도개발지역 사업 검토 위탁

러시아연방 부총리이자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는 회의를 열어 2017년 극동지역개발 사업을 총결산하고 2018년 주요 과제를 결정했다.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선도개발지구들에 투자계획 실현이다. 러시아연방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오시포프 제1부장관에 따르면 현재 선도개발지역의 일환으로 투자계획 실현에 대한 211개의(총 2조2천억 루블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며 이 기획의 실시로 3만7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투자의 상관관계는 2017년에 선도개발지역 주요 인프라시설에 있어 연방예산 1루블리에 개인적 투자 39루블리가 해당되었다는 것이다.

총결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선도개발 지역으로는 <벨로그orsk>, <남부 야쿠치아>와 <칸갈라스크>가 선정되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선도개발지역의 미래사업 전망에 대해 독자적 제안을 끌어내고 딱히 불필요한 구역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극동개발부에 위탁했다.

####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구역 시장으로는 일 블라지미르가 선출

1월 24일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벡토르>회사 대표이사 일 블라지미르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도로수리건설국>국가기업 사장 하지예브 드미트리가 후보로 올라 선거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다수가결의 공개투표로 진행되어 일 블라지미르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 사할린주, 첫 아이 출생 보조금에 대한 신청서 접수 시작

연방법에 따라 사할린주에서 2018년에 첫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는 매월 14734루블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한 신청서류 절차는 거주지 사회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이 보조금 지급은 가구에 1인당 수입이 21828루블리를 넘지 않고 3명의 가정에 총수입이 65484루블리가 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가정에 아이가 탄생한 지 1년 6개월 미만이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 사할린, 또다시 풍설

올 겨울은 본래 사할린 겨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눈이 많고 풍설이 잦은 날씨에 지난 주 또 한차례의 풍설로 인해 제설 작업을 완전히 끝까지 못한 상태에서 24일 재차 폭설이 쏟아졌다. 임시 항공기도 결항되고 일부 기차 통행이 차단되고, 몇몇 지역들에서는 정전이 되고, 일부 도로도 막혔다. 24일 밤에 잠잠해진 눈보라는 25일 낮에 다시 심해지면서 오하, 노글리키, 티몹스코예, 홀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포로나이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토마리,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브, 돌린스크 구역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26일 까지 풍설이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설 작업에는 600대의 기기(화물차, 제설기)와 작업인부 15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새고려신문

###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올해의 첫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사할린의 허남영 작가 시인이 쓴 책이 드디어 현재 모스크바 한 인쇄소에서 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2권으로 된 이 책을 허남영 시인은 오래 전부터 창작해 왔다. 1권은 <노타 라(음표 라)>란 제목으로 시, 에세이, 수필 등으로 편성되었고, 2권은 <밝은 밤>이란 제목으로 허남영 시인이 번역한 조선시조로 구성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출판 부수는 1000권 정도라고 한다.

허남영 시인은 지금까지 써 온 글들을 책으로 엮어 출판할 계획을 오래 전부터 세워왔다. 자신이 직접 책을 편집하고 책 두 권 속에 삽화는 그의 아들 세르게이가 그렸다. 특히 시조편에서는 한 장에 시조 한 편과 그림 하나로 편집되었다.

필자는 허남영 시인과 지인으로 관계한 지 25년이 넘었다. 처음 그의 시를 80년대 말 당시 사할린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신문 <물로다야 그와르지야>에서 보게 되었다. 그땐 작은 사할린 도시 토마리에서 지낸 이 시인의 글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듯 감성이 풍부하고 운율은 가벼운 음악처럼 리듬감이 느껴지는 시였다.

허남영 시인은 1949년에 토마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허 조 씨는 지식인이었고 조선학교를 열어 한때 교장을 역임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귀향에 대한 노력을 해온 부친은 동포사회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았다. 허 시인은 9남매 중 6번째이다. 부모에 대해 남달랐던 애정은 그의 글 속에서 아주 따뜻하게 어머니를 그려내고 있다. 어머니는 착하고 따뜻하고 정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어릴 적에 들려주었던 많은 전설, 옛이야기들을 나중에 러시아어로 번역해 표현했다. 허 작가의 부친 또한 글을 잘 썼고 형도 이런 소질을 지니고 있었고 음악과 그림에 관심이 많은 형

## 러시아와 조선문학의 아름다운 조화 책 출판을 손꼽아 기다리는 허남영(허 로만) 시인



제도 있다. 그의 문학적, 예술적 감각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인지도 모른다.

허남영 시인은 9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첫 시들은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지에서 게재되었다.

25세까지 그는 한국어로만 시를 썼고 이후 러시아어로 시를 쓰기 시작하여 차차 사할린 문학계에서도 알려지게 되었다. 부모, 형제, 가족에 대한 시들은 대다수가 한국어로 탄생되었고 다음에 러시아어 번역본이 생겨났다. 그래서 허남영 시인은 가끔 열리는 공연에서 한국어로 먼저 시를 낭송하고 러시아어로 노래를 들려준다.

젊었을 때 다양한 일(석수, 음악가, 경비, 목수 등)을 해본 허남영 시인은 1990년대에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면서 토마리에서 일자리를 잃고 1999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전해 창작에 더 빠지게 되었다.

동양적인 면과 서양적인 면의 아름다운 조화가 그의 작품과 특히 시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다. 이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허남영 시인의 영원한 팬이 되고

만다. 그의 창작은 오래 전부터 사할린지역의 경계를 넘었다. 그의 명성은 모스크바 예술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잘 알려져 있다. 러시아 국민 배우이며 음악과 시의 극장을 설립, 운영하는 엘레나 캄부르와는 그의 시를 가끔 극장 공연에서 낭송한다. 그녀와의 인연도 20여 년이 되었다.

러시아의 유명 작가 김 아나톨리는 허남영 시인의 문학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2010년에 사할린에 마지막으로 다니러왔을 때 "허 로만을 잘 챙겨주세요, 도우세요, 배려해주세요. 그런 시인들이 귀하다."라고 여러 번 언급했다. 필자는 작년에 모스크바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김 아나톨리 작가를 만나 인사하는 중 "허 로만에게 꼭 안부를 전해드려."라는 말을 들었다.

허남영 시인의 시는 여러나라의 언어(28개국)로 번역돼 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저자의 허락없이 번역되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의 작품들은 일본, 중국, 노르웨이, 프랑스, 이스라엘 등 수많은 나라에 알려져 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분이 연락하여 허남영 시인의 <연분, 또는 나비의 도약>시집을 번역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하여 동포 시인은 물론 <오케이>라고 허락한 상태다.

현재 사할린학교 지역문학수업에서 그의 작품을 가르치고 있다.

어머니의 순수함을 물려받은 허남영 시인은 성격상 물질적 형편을 잘 파악하고 이겨내지는 못했으나 그의 창작과 '허남영'이란 인간을 좋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

허남영 시인은 문학인으로서만 아니라 자신의 시를 가지고 작

곡하기도 하고 러시아와 조선의 시인들의 작품으로도 작곡해 사할린에서 잘 알려진 야나나 김로가수와 함께 공연활동도 해왔다.

음유시인으로서 그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마라 등지에서도 기타를 치며 단독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관중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한다.

이런 공연에서 그는 한국어로 된 자신의 시, 러시아 예세닌, 루브초브 등의 시, 조선의 김소월, 윤동주의 시 등을 낭송한다.

허 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바로 예세닌과 김소월, 윤동주다. 김소월은 조선의 예세닌, 예세닌은 러시아 김소월이라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둘다 민요시인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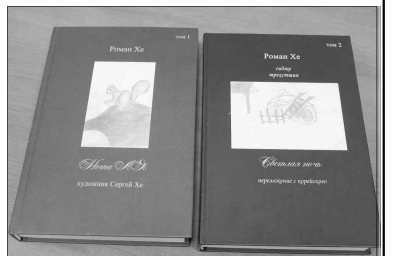
이번 출판사에 맡긴 2권의 책은 허남영 시인의 삶의 일부가 담겨있다.

이번 1권 책은 허남영 시인이 전에 출판한 작품과 신작을 모아 엮은 자작 선집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첫 권을 <노타 라>라고 했는지?"란 필자의 질문에 허남영 시인은 "음표 라는 카메르톤(포크 튜닝) - 음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 중요한 요소란 뜻이다.

1980년대 유즈노사할린스크 <소브레멘니크>서점에서 평양에서 출간된 조선 시조집을 발견하여 허남영 시인은 시조에 우아함에 꼭 빠져 차츰차츰 이 시들을 소화한 후 러시아어로 표현해냈다.

"시조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시조를 그저 원문대로 번역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시조는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감을 전달하는 배열,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조를 여러 번 읽고, 깊이 느끼고,



**허남영(허 로만 세르게예위치)**  
- 러시아 작가동맹원, "소련 여성" · "극동" · "드루즈바 나로도브"(민족친선) 등 잡지 문학상 수상자, 사할린주지사상·사할린 문화재단 수상자이다. **펴낸 책:** "노래하는 소라들"시집(1984), "연분, 또는 나비의 도약"시집(1995), "오작교로"(가치 다리로, 1999) 시집, "햇빛에 반사된 자화상"에세이책(2004).

생각하고, 익히고 나서야 러시아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라고 허남영 시인은 설명했다.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는 조선 시조를 항상 6행시로 번역해왔는데 허남영 시인은 최초로 시조를 러시아어로 옮길 때 3행시 원형대로 번역했다. 이에 대해 모든 문학평론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두 권으로 엮은 이 책을 출판하느라고 그는 최근 3-4년간 마음고생도 많았다. 출판사의 사유로 출판이 계속 미뤄져왔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이 드디어 인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모스크바에서 전해왔지만 허남영 시인은 "제가 출판된 책들을 직접 손에 쥐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지난 11월에 출판을 마치고겠다는 출판사 사장의 약속이 타각되었으 게다가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스키즐이 잡혀있던 책 출간기념회도 취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필자는 이번에 책 출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독자들이 기다리는 허남영 시인의 작품이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되었으면 한다.

(배순신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의 유소년아이스하키팀 한국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승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즈음하여 한국에서 개최된 '고양U-12세계유소년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서 <크리스탈>사할린 아이스하키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는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 고양시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개최되었다. 승리의 컵과 메달을 두고 한국팀, 일본팀, 중국팀, 아일랜드팀, 캐나다팀과 미국팀들이 접전을 벌였다. 사할린팀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의 <아드미랄 2006> 유소년아이스하키팀이 러시아를 대표했다.

경기 결과 사할린팀은 빙상장의 주인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그리고 같이 러시아를 대표했던 블라디보스토크팀도 제치고 우승을 거두었다.

사할린선수들은 23일귀국했다고 사할린스포츠청 소년부 홍보실이 전했다.

### Предолимпийский турнир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вершился победой сахалинских хоккеистов

Юные воспитан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хоккейного клуба "Кристалл"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нире U-12, посвященном предстоящим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в Пхенчхан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с 18 по 21 января в ледовом дворце "Оуллимпури" города Кояна (Южная

Корея). Кубки и медали турнира оспорили хоккеисты Кореи, Японии, Китая, Ирландии, Канады и США. Помимо сахалинцев, Россию представляли юниоры ХК "Адмирал-2006"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 итогу игр островитяне одолели не только хозяев ледового поля, но и американцев, канадцев, ирландцев, а также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соседнего региона, став побед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цы возвратились домой 23 янва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사할린 주민들에게 <사회적 휘트니스(체력단련)>기획 일환으로 스키 타기를 제안

사할린주 스포츠청소년정책부가 주 체육문화관리국과 동계스포츠학교와 공동으로 정기적 체력단련에 시민들을 초대한다. <사회적 체력단련>기획은 크로 컨트리스키를 익히는 데 도움을 주고 스키 강사가 고전적 기초기술을 가르치는 가운데 스키는 실제적으로 각 신체의 근육을 튼튼히 형성시켜 시민들로 하여금 겨울철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훈련에는 연령과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참가가 가능하다.

시간별 강습은 2주 전에 시작되었고 사할린 동계 스포츠학교(고리키 거리 7/1)를 거점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습이 진행된다. 시작은 오전 10시다. 토요일에는 그룹별 스키 보행 기술을 익히고, 일요일에는 강습소가 작성한 스키노선을 따라 스키를 탄다. 스키 장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여가 가능하며 사회적 체력단련의 참가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스키장비의 대여를 원하는 참가자들은 강습시간 30

분 전, 9시 30분까지 <스파르타크> 스키장에 도착해 스키장비를 대여하길 조직자들은 권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89624199419전화로 문의를 바란다고 주 스포츠부 홍보실은 전했다.

###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встать на лыж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управлением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и школой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 приглашает горожан на регулярные фитнес-тренировки. Проект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поможет вам встать на беговые лыжи, тренер научит азам техники классического хода, так что в зимние месяцы вы сможете проводить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на природе и набрать хорошую форму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м группам мышц тела.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тренировок может каждый —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и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Часовые занятия начались две недели назад и проходят каждую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на базе СШОР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Горького, 7/1). Начало в 10:00. В субботу группа отрабатывает навыки лыжной ходьбы, а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ходит по маршрутам, ранее разработанным школой.

Те, у кого нет инвентаря,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проката лыж.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оциального фитнеса он будет бесплатным.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комендуют подходить в пункт выдачи инвентаря за полчаса до начала занятия — в 9:30 — на лыжную базу "Спартак" (Горького, 7/1).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узнать по телефону: 89624199419,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8면에 계속)

[내가 만난 名문장]

'슬픔의 틈새' 사할린을 보듬다



존재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작업도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럴 때야 비로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 내일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으리라." —최상구 '사할린'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가 '슬픔의 틈새'라 부른 섬 사할린.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의 이 얼어붙은 섬은 1870년대 조선인의 이주가 시작된 이래 1983년 KAL기 격추 사건 등 한국 근현대사와 적잖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사할린은 실존하나 잊혀진 존재였다

현재 한국은 사할린에서 연간 수요량의 6%에 이르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석탄 광산으로 이름을 날렸던 섬이었다. 문제는 그 광산에서 일한 이들 중 상당수가 관의 모집이나 알선, 징용 등의 이름으로 끌려온 십수만의 조선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뒤 '고려인'이라 불리는 연해주 조선인들과 구별돼 훗날 '사할린 한인'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들 사할린 한인은 일제 때까지만 해도 일본 국적이었으나 광

복 뒤 곧장 무국적자 신분이 된다.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이 국적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소련으로부터는 일본 스파이란 의심을 받아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버림받았다. 애초 한반도 남부에서 간 이들이 많다 보니 북한이 국적을 주려 할 때 선뜻 나서는 이들이 많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오랜 기간 이들을 보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렀고, 한인 1세대 중 남은 이는 이제 겨우 1000명 남짓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아예 두 손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그 대상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으로 갔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이로 제한해 8월 16일 이후 사할린에서 태어난 이를 비롯해 2, 3세의 자녀들은 원천 배제됐다.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원죄, 광복 뒤 조국에서 벌어진 전쟁과 가해자 일본의 무책임이 잉태한 희생자들에게 가해진 또 한 번의 비극이었다.

최상구가 쓴 르포르타주 '사할린'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사할린 한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과정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등한시해 온 과제까지도 역사의식과 인권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풀어냈다. 특히 투박하지만 진솔한,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현지에서 만난 사할린 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 닿는 열정적이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은 문장 너머의 맥락을 이해하게 해준다.

권기봉 작가, 역사여행가 (dongA.com, 2018.01.20)

재중동포 청소년 56명 한민족 자긍심 함양 위해 모국 방문

재중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재중동포 청소년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와의 결속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5박 6일간 재중동포 중·고등학생 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과 전주, 공주를 오가며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의 사회·역사·문화 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게 된다. 또, 국내의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해 지역별 문화를 보고 배우는 것은 물론, 국내 청소년들과의 교류 시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이 입국하는 21일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전야제가 열렸다. EBS 스타 강사인 최태성 강사의 '3.1 운동' 강연으로 모국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 만찬 후 참가자간 교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이후, 재중동포 청소년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주, 공주 등 다양한 지역을 오가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한글박물관, 홍사단, 전주와 공주의 한옥마을 등을 찾아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남산타워, 잠실 롯데월드, 상암 방송테마파크 등 모국의 문화적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도 돌아보았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를 방문해 한국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한성대 박우 교수 등 국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재중동포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쇼를 통해 동포 간 결속력을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현지 동화로 정체성 유지가 필요한 재중동포 청소년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중동포 청소년들이 미래 한중 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기획> 사할린에 우리 동포가 있다 정부는 어떻게 사할린 동포를 방치해 왔나

"정부가 바뀌면 다를까하고 기대했는데 조급의 변화도 없다."

-2017년 12월 9일,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역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 대표가 페이스북 북에 남긴 글

1994년, 한국과 일본 두 정부는 사할린 잔류 한인(동포)의 지원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합의의 별이다. 합의에 따라 한인 1세대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 이주하여 계속 거주중인 자'로 규정됐다. 시간이 지나 2017년 현재, 사할린 동포 1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를 알기 위해선 우선 관심 밖으로 밀려진 동포 1세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를 들춰봐야 한다.

사할린 동포 1세란 어떤 사람들인가. 일제 패망 당시 사할린에는 대략 4만3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에서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여기에는 돈을 주겠다고 조선인들의 사할린 이주에 앞장선 조선총독부를 필두로 한 관(官) 알선도 포함된다)에 따라 사할린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1945년 8월 15일 이후 소련 치하에 놓인 사할린으로 유입된 이북(북한) 출신 노동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북한에서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까지 더해 동포 1세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 사할린 동포 1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귀국을 희망하는 이남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

로 이뤄지고 있다. 외교부가 발간한 '재외동포현황 2017'에 따르면 사할린 거주 동포 수는 2만6491명이다. 3만 명이 넘었던 인구수는 매년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생존해 있는 1세대는 2014년 기준 700여명 남짓. 지금까지 2015년 12월 말 기준 동포 4368명이 고국(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는 영주귀국을 택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해 사할린으로 다시 돌아간 동포, 사망자들을 제외하면 같은 시기 기준 동포 3035명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우리네 동포들을 가리켜 '고려인'이라고 통칭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할린 동포 또한 고려인으로 불러야 하겠지만 사정은 복잡하다. 사할린 동포의 이주배경이 새롭게 삶의 터전을 꾸리고자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간도와 연해주 등으로 이주한(이들 중 상당수는 1937년부터 10여 년 간 실시된 소련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터전을 옮긴다) 다른 고려인들과는 달라서다.

사할린 동포의 배경에는 반강제적으로 식민지 조선인을 사할린으로 데려와 패망 이후 버려두고 떠난 일제의 책임이 지대하다. 일제의 패망 이후 동포사회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솟구쳤으나 금세 좌절감으로 바뀌었다. 냉전과 한국전쟁이 곧 이어졌고 소련이 사할린 전역을 차지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연락은 가로막혀 있었다. (7면에 계속)

사할린한국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현지 채용 직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아래 -

- 1) 모집 직종: 사무원
  - 통번역
  - 각종 행정업무
- 2) 지원자격
  - 가. 2018년 1월 1일 기준 만50세 미만 (1968.1.1 이후 출생자)나, 러시아 국적자
  -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자 우대
  - 라. 컴퓨터활용능력 보유자 우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 마. 사할린한인동포 사회에 기여자 우대
- 3) 채용기간: 2018.2.1. ~ 4.30. (3개월 수습)
  - ※ 3개월 수습 기간 후 정식 계약(1년 단위)
- 4) 선발절차
  -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 공통: 이력서(교육원 제공 양식), 여권사본
    - 우대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
    - 컴퓨터능력활용 자격증(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서류제출 기간: 2018.1.9.(화)~1.24.(수) 16:00
  - 제출방법: 한국교육원 방문 접수
  - 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3배수 면접 ※ 1.26.(금) 면접 대상자 통보
    - 면접일시: 2018.1. 29.(월) 10:00
    - 최종발표: 2018.1. 30.(화) (예정)
- 5) 문의처: 사할린 한국교육원
  - 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거리 83-A
  - 전화: 505696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исательский форум «Пхёнчхан 2018»

С 19 по 22 январ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Пхёнчхан 2018»,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Сеуль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открытию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республике. В этом почет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тысячи коре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исателей, уче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молодежных лидеров. «Писатели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бираются в Пхёнчхане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а» – так можно выразить главное послание форума,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круглые столы на актуальные темы гендер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эколог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религи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бед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В секции «Мир и Регионы» выступил казахстанский писатель Александр Кан, представлявший полумиллионную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проживающую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чей доклад о духовном существовании коре сарам в его экзистенциальном измерении, был выслушан с огромным интересом и последующим бурным обсуждением.

После сессий все приглашенные литераторы посетили знаменитую библиотеку Coex Starfield Library, где подарили корейским читателям свои книги, а также подписали Декларацию о Мире, в память о форуме. Причем декларация эта составлялась из цитат самих авторов по принципу: один автор, одно предложение, в которых они выражали надежду на мирное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тва. После плодотворных двухдневных дискуссий наступило время отдыха, и гости традиционно посетили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ую зону в Пханмунджоме, затем олимпийскую деревню в Пхёнчхане, в котором с 9 по 25 февраля пройдет Олимпиада, и друг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этой удивительной страны с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ой. Подытожива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форум прошел успешно, под пристальным вниманием всей мировой прессы, с выступлениями самых яр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стран, народов и диаспор, и, по сути, дал старт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 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2월 9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 Почему отношения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опять потеплел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 опасаясь военных угроз Вашингтона, решил снизить градус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дал понять Сеулу, что готов восстановить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нтакты. С другой – левые националисты, пришедшие к власти в Сеуле,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тремились установить такие контакты, рассчитывая, что частичная нормализац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низит вероятность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Иначе говоря, и в Сеуле, и в Пхеньяне надеют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не будут так рваться стрелять, если решат, что Пхеньян пошел на уступки, пусть и символическ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оторый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был чуть ли не гла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друг стали происходить события, поражающие своим миролюби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явила, что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хёнчхан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Более того,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ыставляют на Игры единую команду, которая будет выступать под нейтральным флагом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мес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имна они планиру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Ариран».

Сообщение об этом стало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ведь еще в декабре большинство наблюдателей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хёнчхане.

Впрочем, О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все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появились признаки потепл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на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к политическим переговорам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серьезно обсуждаются контакты по лин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 возможная встреча членов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многие из обсуждающихся сейчас контактов всего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предлагались Сеулом, но были с негодованием отвергнут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 Поворот в Пхеньян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его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ла ракетно-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проводила запуск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БР) и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причем добилась в этом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именно в 2017 году КНДР впервые испытала как полноценный водородный заряд, так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пособные поразить территорию США. Особенно показательным был запуск «Хвасон-15», нов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МБР, которая в состоянии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любой точке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Тем не менее, несмотря на эти акции и сопровождавшую их воинственную риторику, большинство наблюдателей предполагали, что мы имеем дело с обыкновением для КНДР тактикой. Эта тактик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что за периодом нагнета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следует период переговоров.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однако, стало то, что поворот к переговорам произошел раньше, чем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Один удачный запуск не является достаточным основани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авить МБР на вооружение. Поэтому наблюдатели предполагали,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начала проведет серию запусков «Хвасон-15» и лишь после этого сменит риторику и пойдет на переговоры, на которых будет говорить с позиции силы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мож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серьезные уступки. Однако сейчас мы видим, чт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разворот произошел раньше, чем ожидалось.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сочли такое развитие событий своим достижением, о чем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о обыкновению, и заявил в твиттере.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что на этот раз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прав и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несли свой вклад в неожиданное измен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Вед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жесткой была не только риторика Пхеньяна: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по жесткости заявления регулярно делались и в Вашингтоне. Из окружения Трампа постоянно просачивались слухи, что в Белом доме всерьез думают о нанесении ударов по стартовым позициям ракет или по иным объект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удно сказать, сколько в этих слухах было реальности, а сколько блефа. Мнения на этот счет были разные, и даже хорошо информ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КНДР терялись в догадках. Тем более терялись в догадках и в Пхеньяне.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 последний год казалось, что вероятность вооруженного удара со стороны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резко возросла. Понятно, что такую угрозу в Пхеньяне игнорировать не могли. Хотя в случае прямого конфликта у КНДР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анести противнику тяжелый ущерб, шансов на победу в военн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с США 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т.

Именно в этой обстановк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ажется, решили снизить накал ситуации, опасаясь, что продолжение запусков МБР и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ереполнит чашу терпения Трампа и его окружения и подтолкнет его к решению о применени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иловых мер.

### Поворот в Сеуле

Беспокойство (и даже страх) Пхеньяна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го конфликта вполне разделяли и в Сеуле. После выборов,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мае 2017 года, к власт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шли левые националисты, которые традиционно относились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ущественно мягче, чем 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и из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лагеря, правившие страной в 2008–2017 годах. В своей предвыборной платформе Мун Чжэ Ин обещал, что преодолет кризис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возникший из-за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консерваторов, и наладит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Однако после избрания Мун Чжэ Ина президентом стало ясно, что его планам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е дано осуществиться. Главную роль тут сыграла жесткая позиция нов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торая самым недвусмысленным образом выступает против лю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проти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звано это тем, что на практике та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является замаскированной форм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со стороны Юга,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дотаций 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юджета и фактически подрывает режим санкц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против КНДР.

Мун Чжэ Ину удалось получить от Трампа согласие на то, что Сеул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 спортивные, гуманитарные и прочие формы не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Пхеньяном. Однако это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успех на практике значил мало, так как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амым недвусмысленным образом отвергала любые попытки Южной Кореи наладить такие 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Тем не менее стремление окружения Мун Чжэ Ина улучшить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икуда не делось,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нарастающая угроза вооружен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создавала немалую нервность в Сеул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совпало несколько тенденций. Во-перв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пасаясь поступающей из Вашингтона информации, решило снизить градус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дало пон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что готово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и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нтактов и даже н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о-вторых,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Муна, котора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тремилась установить такие контакты,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тала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то, что частичная нормализац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низит вероятность возникновения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Иначе говоря, в Сеуле (и Пхеньяне) надеют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не будут так рваться стрелять, если решат, что Пхеньян пошел на уступки, пусть и символические.

Так и возникла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при котор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явятся в Пхёнчхане.

Все это можно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ибо олимпий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нижают вероятность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оторая сейчас выше, чем когда-либо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три десятилетия. Тем не менее излишним оптимизмом по поводу происходящего лучше не проникаться.

Речь идет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носящих косметическо-символ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Никуда не делась решимость руковод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здать полноценный ядерный арсенал и разработать средства доставки, способные нанести ядерный удар п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част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Отказ от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или ее существенное сокращение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как первый шаг на пути к коллективному политическому и даже физическому самоуничтожению, и поэтому на серьезные уступки рассчитывать не приходится.

Более того, недоработанной остается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ракетная программа, так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как только отшумят олимпийские страсти и в Белом доме несколько успокоят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тартовые площадки опять услышат рев реакти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Испытания наверняка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и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гарантированно вызовет жесткую реакцию США.

Нынешние контакты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 олимпийским делам никак не решают ключевых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являются лишь способом выиграть время. Тем не менее даже временное сниж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перелетные люди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на Сахалине

супер скидка на проживание 15% для всех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с 01/01 по 31/03

скид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о тел.: 8(4242)498-400 И ЧЕРЕЗ E-MAIL: RESEPTION@GAGARINHOTEL.RU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группа завершила визит в РК и вернулась на родину

22 января групп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поездки на Юг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ансамбля «Самджиён» вернулась на родину по завершении



двухдневной поездк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ем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о главе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ансамбля «Моранбон» Хён Сон Воль пересекли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через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й пункт Торасан в 21:53 по сеульскому времени. В первый день состоялся осмотр Центра искусств в городе Каньинне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а второй день был посвящён знакомству с концерт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Сеула. Были осмотрены два спортивных комплекса и Национальный театр.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театр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ости протестировали световое и звук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техническим оснащением сцены. День завершился ужином в одном из сеульских отелей. Ранее Юг и Севе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том, что ансамбль «Самджиён» в составе 140 человек выступит в Каньине и Сеуле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 Фильм "Вместе с богами: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посмотрели 13,5 млн зрителей

К 22 января нов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Вместе с богами: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3 млн 59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трет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На первом и втором местах картины "Битва при Мёнряне" и "Ода моему отцу", премьера которых состоялась в 2014 году. Между тем, новая лента показывает хорошие показатели и по уровню доходности. На создание фильма, состоящего из двух частей, был израсходован бюджет в 37,3 млн долларов. Однако уже сейчас на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РК сборы только от первой части фильма превысили 100 млрд вон или 93,3 млн долларов.

## РК намерена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уицидов

23 янва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ло меры по снижению уровня суицидов, по которому страна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стран ОЭСР. В 2016 год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результате самоубийств погибли 13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25,6 человека на 100 тыс. населения. Для сравнения,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ОЭСР составляет 12,1 человека. РК сохраняет незавидное лидерство в этом критерии 13 лет подряд. Власти представили меры, рассчитанные на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дёт тщатель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70 суицидник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Цель этого состоит в создании базы данных о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выбираемых для суицида местах, причинах таких действий, особенностях таких людей и т.д. На основе этих данных решено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мониторинга расположенности людей к суициду, чтоб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твращать это.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концеп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около 1 млн человек,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главы районов и местных сообществ, а также госслужащие, работающие на местах. Будут расширены меры по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ю депрессии и дальнейшему уходу за пациентами.

## В Кунсане пройдёт 14-я культурная ярмарк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В ма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стоится 14-я культурная ярмарк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Она пройдёт с 24 по 27 мая в городе Ку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Данная ярмарка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крупной в стране площадкой, где молодёжь может показ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умения, а также получить разли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культурных движениях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50 тыс. человек – молодёжь со всей страны, родители и кураторы различных движений.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ставить около 200 стендов с разным контентом.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лекции, семинары и форумы, конкурсы и соревнования.

(РКИ)

## КНДР в Олимпиаде-2018 в Пхенчхане

На прошедшей 20 января в Лозанне четырех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е с участи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МОК), Оргкомитета ОИ-2018,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стороны окончательно согласовали условия участия делег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енчхане.



Фото: REUTERS/Pierre Albouy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была подписана декларация, которую зачитал глава МОК Томас Бах.

Спортивная делегация КНДР на ОИ-2018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46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22 спортсмена и 24 тренера и специалиста. В женском хоккее появится единая сборная Кореи, а делегации двух стран пройдут вместе на церемониях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ОИ. Кроме того, на игры будет аккредитован 21 журналист из КНДР.

МОК согласил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квоту (wild card)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пяти видах спорта - хоккее на льду среди женщин,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беговых, горных лыжах и шорт-трек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конкретно, то КНДР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парном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Рим Дэ Окком и Ким Чжу Сиком. Участие этой пары вызвало меньше всего сомнений, так как эти атлеты - единственны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которые ранее получили прав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И-2018 по спортивному принципу, сумев пройти сито отборочных состязаний. Однако ранее они не подали в установленное время заявку, их квота перешла к другим атлетам, а потому понадобилось специальное решение МОК.

В шорт-треке защищать честь КНДР на дистанции 1500 м у мужчин будет Чон Гван Бом, а на дистанции

500 м у женщин - Чхве Ын Сон.

В беговых лыжах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тр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лыжников - Хан Чху Гён, Пак Иль Чхоль (мужчины) и Ри Ён Гым (женщины). Также трое спортсмен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горными лыжами, из КНДР поедут в Пхенчхан - Чхве Мён Гван, Кан Сон Иль и Ким Рён Хян, которые выступят в дисциплине "гигантский слалом".

Пожалуй, самая нестандартная ситуация сложилась в женском хокке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что создается единая сборная Кореи, в которую войдут 23 спортсменк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 12 северокорейянок. Вопрос конкретного участия каждого из спортсменов в играх будет решать тренер сборной Южной Кореи, так как именно южанки, а не КНДР ранее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играть на ОИ-2018.

Так как наз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КНДР"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звучат совершенно по-разному, то общая команда будет иметь везде английское название - Korea, а сокращенный вариант определен как COR. В качестве гимна будет играть общая для Юга и Севера национальная песня "Ариран". Стороны также пришли к решению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единой команды отдельный особый флаг - изображ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голубым цветом на белом фоне.

На церемониях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делегации РК и КНДР также пройдут вместе под флагом "единой Кореи". Нести флаг будут два человека - женщина и мужчина,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Глава МОК Томас Бах не скрывал своего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и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шедшей встречи.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Пхенчхане открыли дверь для мирного диалог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аша встреча сегодня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олимпийский спорт наводит свои мосты. Он никогда не возводит стен", - подчеркнул Бах.

Напомним, что очередные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начнутся 9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продлятся до 25 февраля. Основные объекты сосредоточены в двух местах - уезде Пхенчхан, чье имя фигурирует в официальном названии игр (ОИ-2018 в Пхенчхане) и городе Каньин. В первом регион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объекты для "снеж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лыжи, биатлон, сноуборд и прочие), а также санно-бобслейная трасса. Каньин стал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состязаний по "ледовым видам" - хоккей,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бег на коньках, шорт-трек, керлинг.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крыт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Первый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едиаФорум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ов

1-2 ма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еру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АТР, признанные эксперты в сфере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есс-служб, PR-специалисты и маркетологи.

Символом МедиаФорума стал маяк Анив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Сахалина. Организаторы вкладывают в этот выбор особый смысл. Общаясь с коллегами, обмениваясь опытом,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смогут найти новые ориентиры и идеи для своей работы.

- Любой выезд сотрудника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для обучения, дело очень затратно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ыс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 работе масс-медиа, лучшими наработками в современ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е, –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 площадках форума признанные эксперты на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делятся с коллегами секретами успеха в профессии, состоятся дискуссии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в программе пресс-туры на крупнейш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Люб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лезны, а особенно такого уровня. Я бы посоветовал коллега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и посетить его.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ся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пообщаться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темы, это стимул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 выразил своё мнение корреспондент телекомпании "ОТВ" Евгений Коньков.

Форум организу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для участия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ерв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аФорума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ов.

##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осваивающих горные лыжи

Второй сезон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Лыжи в школу»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ой стали более ста учеников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Анивы, прошла на ниж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 Быстрее бы на гору! – не скрывал нетерпение школьник Алексе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Я катался на беговых лыжах. Но там спуск получается медленным. А на горных – это же полет!

Первоначально в проекте «Лыжи в школу», запущенном год назад, акцент сделали на развитие самого демократичного и массовог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да спорта – лыжных гонок.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школ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лучили 5000 комплектов беговых лыж. Учащиеся и их родител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начинание. При это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многие юн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хотели бы освоить и горные лыжи, которые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юге,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склонах горы Большевик с 1960 года работает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десь участники советской сборной готовились к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1972 года в Саппоро.

Сегодня «Горный воздух» - центр одноим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Здесь создан лучш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ссчитанный как н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так и на турис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из-за рубежа.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обустроена самая протяженна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она катания,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ошли навстречу пожеланиям детей.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в состав проекта «Лыжи в школу» включили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Горнолыжная подготовк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ее прошли 100 человек - учащиеся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пяти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нятия проводились во внеурочное время. Инвентарь бесплатно предоставила областная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В 2018 году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уют уже 12 школ, в том числе и одна из Анивы. А количество учащихся, осваивающих горные лыжи, возросло вдвое, и составило 325 человек.

В системе подготовки школьников присутствует и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й элемент. Губернатор и другие почетные гости церемон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по горным лыжам Владислава Буреева и Дмитрий Ульянов, поставили свои автографы на горнолыжном шлеме с символикой проекта «Лыжи в школу». В дальнейшем в конце каждого сезона его в качестве переходящего приза будут торжественно вруч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школы, чьи ученики добьются самых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мой сын Матвей получил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иматься горными лыжами,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Анивы Марина Соколова. – Это очень инте-

ресный, но довольно дорогой вид спорта. Для нашей семьи с двумя детьми оплачивать снаряжение для горных лыж было бы очень накладно. А тут нам предложили заниматься за счет бюджета. И мы, конечно 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возможностью. Особенно обрадовался сын, ему не терпится приступить к занятия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Лыжи в школу»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закуплено 200 комплектов детского горнолыж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Каждый из них стоит более 20 тысяч рублей.

- Мы намерены наращивать количество снаряжения, поскольку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растет,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 Занятия с детьми будут вест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инструкторы.

Инициаторы проекта считают, что увеличение доли сахалинцев, имеющих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горнолыж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соблюдающих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на склонах приведет к сокращению случаев травматизма, повысит общий уровень безопасности.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ставить на горные лыжи малышей, в том числе и мою дочь, будут специалисты, имеющие опыт работы с детьми, - сказала Елена Чевакина,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Я думаю, это будет более безопасно, чем занятия с частным инструктором. А вообще дочери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освоить горные лыжи, она просто в восторге.

К занятиям горными и беговыми лыж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ривлекаю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6-2020 годы». Ее утверд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около двух лет назад.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находи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вают паллиативную помощь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открылос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тделение на 10 коек. Здесь в отдельном блоке установлено специа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А в Синегорске идет ремонт одного из корпусов центра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рассчитанного на 30 коек.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облегчение страданий больных с неизлечим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 основной принцип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В онкодиспансере её оказывали и ранее, но койки были разрознены по разным отделениям.

В подразделении работают два онколога, терапевт, психотерапевт. Большая нагрузка,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ская, но и моральная – на плечах 14 специалистов среднего и младш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 От обычного это отделение отличается полностью. Иногда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требуетс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чтобы пациент не замкнулся, не ушел в себя. Психотерапевт работает не только с больным, но и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 рассказал о нюансах работы отделени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иктор Ли.

Для каждого пациента паллиатив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с подбором обезболивающих средств и лечебного питания. Не все больные в силах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нимать пищу, некоторым требуется зондовые или внутривенные питательные растворы.

В отделении постарались созд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ациентов и их близких. В каждой палате по две кровати, одн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родственника.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не ограничен.

Алексей Дедученко две недели не отходит от супруги, ухаживает, старается помочь и словом, и делом.

- По-человечески хорошее отношение. Дома что я могу сделать? Максимум - укол поставить. Здесь круглосуточная поддержка, есть все нуж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 самом отделении все продуман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иться рядом с близким человеком,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ей.

В Синегорске центр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двух корпусах, он созда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базе бывшего отделения сестринского ухода. Одно из зданий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о втором заканчива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Кроме основных работ потребовалось небольшое изменение конструкций – строители увеличили проемы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перемещения кроватей-каталок. Закупили мебель – столы, тумбы,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кровати. Многие из пациентов подолгу находятся в лежачем положении, для них созда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было легче и самому больному, и персоналу.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в центре планируют создать мобильную бригаду для выезд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дом к неизлечимо больным. Они смогут оказ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решить вопросы по обезболиванию.

Условия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созданы и в двух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ах, в Поронайске и Охе. В каждой одновременно могут принимать по 10 профильных пациентов.

Развитию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в стране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Эта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 орга-

низацию ухода за тяжелобольным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2018 году буд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ено 4,3 млрд. рублей.

## На Сахалине введут социальные карты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адресной поддержке в регионе наиболее нуждающихся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выступил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ласти инициативу одобр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ейчас готовится проект закона,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егулирова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ьгот. В частности, отмечают его разработчики, владельцы социальных карт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скидки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в магазинах.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ней обсуждались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от которых зависи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иалог стал уже традиционным и приносит результаты.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выступили от имени горожан, обозначив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площадей для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й служб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отреагировали - сегодня дл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ектируется но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 сказал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ОНФ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тантин Тюкавин. – Учтены и другие важные пожелания. Обновлен автопарк городской службы скорой помощи - куплено 18 современных спецмашин.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ля учреждения нового здания.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отмечают активисты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далось снять острую проблему дефицита мес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Сейчас важно строить школы. Так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включили в защищенные статьи бюджета. Уже активно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 в Долинске. На очереди - возвед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Корсакове, Смирных, Ногликах, Макарове, а также в селах Тунгор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Кировск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 в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Дальнее и Луговое, а также четырех пристроек к гимназиям №3 и №1, школам №6 и №26.

Улучш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скорение темпов газификации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и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утилизации мусора – на решении этих вопросов члены ОНФ предлагают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региональным властям в дальнейшем.

Боле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по их мнению, следует уделить адресной помощи наиболее нуждающихся жителей, в частности, пенсионеров. О правильности такого подхода ранее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считают активисты, заслуживает инициатива о внедрении социальных карт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х разработк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ся профильн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В ведомстве отмечают, что к социальным картам будет подключена система лояльности, что позволит их владельцам получать скидки на определенную группу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Начать внедрение новой системы в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с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последствии распространив ее на все районы.

- Ни в одном российском регионе нет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ьгот как у нас, - поделилась Татьяна Рукавишникова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енсионеров «Совесть». – Я давно занимаюсь защитой прав сахалинцев и раньше мне не доводилось делать реверансов в сторону власти. Но сегодня - исключение. Наши 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олучили столько, сколько не получали за предыдущие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 Для неработающих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решен вопрос с бесплатным проездом в пределах области или на материк раз в два года. Теперь они могут съездить и к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 отдохнуть на теплое море. При этом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путевки в санатории юга России с хорошей скидкой. А раз в три года дается бесплатная путевка в местный санаторий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Значительно подешевела стоимость льготных билетов на проезд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Компенсируются затраты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для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х пенсионеров.

Тем не менее, общественница предложила нов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пенсионеров. Например,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региона, считает она, было бы целесообразно ввести ставки врачей-геронтологов, которые специализируются на обслуживании возрастных пациентов.

- Хорошая идея, думаю, она поможет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 оценил предлож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 Встречи с общественниками всегда несут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льзу. Поднимаются ре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беспокоят жителей. Уверен,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нам удастся их решить. С Общероссийским народным фронтом 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общая цель -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подвел итог мероприятия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기획> 사할린에 우리 동포가 있다 정부는 어떻게 사할린 동포를 방치해 왔나

(3면의 계속)

## 정부는 사할린 동포를 어떻게 '방치' 해 왔나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 닥치는 러시아연방의 사할린(일본명 카라후토(樺太))섬은 석탄 등의 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보고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사할린섬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일본명 미나미 카라후토(南樺太))을 차지한 일제는 손쉽게 부려먹어도 '큰 탈'이 없는 식민지 조선인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해 석탄을 채굴해 했다.

1944년, 태평양전쟁 전선이 동남아시아로 남하하면서 수세에 몰린 일제는 남사할린의 조선인 탄부들을 한참 멀리 떨어진 일본열도의 큐슈(九州) 등으로 다시 강제 동원했다. 이른바 '이중징용'이다. 아버지, 오빠가 끌려가고 어머니와 남매들만이 남겨진 조선인 가정의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다. 당시의 기억이 비수가 돼 지금껏 자손들의 가슴에 아프게 박혀 있다.

공개된 당시 일본 내각 등의 문건내용을 종합하면 일제는 반강제로 동원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에게 지급할 돈(우편 저금)은 우선 관청이 고이 받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련군과 러시아계 주민들이 일제히 남쪽으로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일본인 38만 명만 훗카이도 북부 연안과 맞닿은 코르사코프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이후 88 서울 올림픽 개최와 구소련의 개방 움직임으로 냉전종결이 무르익던 지난 1989년, 한일 양국 정부는 대한·일본적십자사의 중재로 '사할린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이하, 사할린사업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침략전쟁에 돌입하며 노동력 확보에 나선 일제의 정책에 따라 사할린으로 옮겨진 사할린 잔류 동포 1세를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걸음이었다.

1994년 집권한 사회당 소속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일본 총리가 이끌던 무라야마 내각의 공식 사죄표명은 오늘날 망각됐다. 무라야마 내각이 물러나고 자민당 정권이 들어선 1996년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바뀌었다. 한국 정부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제한을 뒀선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사할린 동포 1세에 한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펼치자는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일본 외무성은 해당 사업에 대해 "(사할린 한인의) 대부분은 귀환의 기회가 없이 장기간 사할린에서 어쩔 수 없이 잔류했다. 일본정부로서는 이러한 역사적 경위 및 인도적 입장에서 한일 공동으로 한국으로의 일시귀국과 영주귀국 등을 지원하기 위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합의로 설치된 사할린사업체는 강제동원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 한국 정부의 복지 확보 및 복지 뒷받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 정부는 세계적 인도주의 단체로 명망 높은 적십자사에 영주귀국, 일시 방문, 귀국자 역방문 등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선별했다.

사할린 동포의 지원을 위한 한일 양국의 공동대표단이 출범했다는 점은 언뜻 '성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실체는 어떨까? 일제강점기로 고통을 겪은 위안부 피해자의 사례와 비교해보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도적 지원을 총괄하는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다. 화해재단은 일본 측의 재정 지원, 한국 측의 복지 뒷받침으로 운영된다. 사할린사업체와 화해재단의 운영방식이 무척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측이 준비한 부지에 일본 측의 자금이 투입돼 사할린동포 전용아파트, 요양원 등이 설립됐다. 이처럼 화해 재단과 사할린사업체의 운영구조는 놀랍도록 닮아있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 하고자 일본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란 논리를 수용했다는 혹독한 평가가 뒤따른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재정지원에만 기대며 '뒷짐'을 져 왔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김영영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장은 "(일본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재정이 부족해 화장지, 기저귀 등 생필품도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1989년부터 이어진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의 재정 규모는 크

게 축소됐다. 일본 정부의 지원액은 2013년 기준 총 800억에 이른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도 영주귀국 사할린 지원 사업안내' 문건에는 "15년 말로 한일 공동 영주귀국사업은 종료하며 16년부터 우리 정부 단독으로 매년 20명 이내 소규모로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은 예산 부족을 근거로 규모를 최소화하는 선별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문제인 정부에 적극적인 사할린 특별법 제정을 바란다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대한 공개발언을 했다. "사할린 강제징용으로 고통 받은 한인 1세분들과 그 후손들의 남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지켜드리지 못한 무거운 빚을 이제라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최선의 노력은 펼쳐지고 있는가. 오히려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등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왜 대통령의 발언에도 이런 일이 이어지는 걸까. 무릇 정책이란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사할린 동포를 지원하는 정책은 중구난방에 낙제점이란 평가가 잇따른다.

우선 사할린 동포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통일조직이 없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전국 24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포 어르신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정부에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여기에 사할린 동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던 비판이 터져 나온다.

사할린 동포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제외동포위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촌동포연대(KIN) 등에서 사할린 동포를 일관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독립된 권한을 지닌 강력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 지난 2006년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과거 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지원책 강화 및 특별법 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계류 또는 폐기 상태다.

이와 관련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은 12월 14일 기자회견의 질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외동포정책위원회는 1년에 한번 열린다"라며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그러면서 "영주귀국 대상을 처음부터 규제(영주귀국사업 대상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나거나 구조한 동포 1세대로 한정)해온 점을 볼 때 한국정부도 영주귀국대상을 넓히는 걸 그리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전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 개선책을 주도해야 한다. 고령화된 동포 1세대 어르신은 차례차례 세상을 뜨고 있다. 2~4세에 대한 지원논의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문 대통령이 "국가가 빚을 졌다"고 말했듯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유해발굴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포들의 사무친 목소리에 훨씬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도적 재정지원을 빌미로 강제동원을 몰타기하려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재차 환기하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외교부 등 관계에서 제기돼 온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니 곤란하다"는 적폐인식도 마땅히 청산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부가 시도를 해 보기도 전에 꼬리를 내리고 책임을 방기하는 꼬락서니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야 할 정부 부처가 앞서 '곤란하다'를 주장하는 꼴사나움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일제와 한국정부에게 방치돼 온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는 우리사회에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사할린 동포를 향한 국민적 차원의 성원이 빚발치기 위한 토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작해야 한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 활짝 흐드러진 사회가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오마이뉴스, 박명훈 시민기자)

## [우리말로 깨닫다]

### 죽어도 용서 못해!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교육진흥원장)

우리나라 사람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라는 표현을 죽는다는 말 대신 사용합니다. 매장(埋葬) 문화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흙을 뿌리기 때문에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을 겁니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눈동자가 하얗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화장(火葬) 문화를 보여줍니다. 불 속에서 모든 것이 재로 변하기 때문에 생긴 표현일 겁니다. 두 표현 모두 눈이라는 말을 쓴 것은 눈을 감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이별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우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에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자식의 결혼을 반대할 때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식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나치고 과장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그렇게 함부로 들먹일 말은 아니지 않은가요?

'죽어도 용서 못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죽으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를 못하고, 그가 죽어도 용서를 못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뜻이었겠지만 언어는 의외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죽으면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죽기 전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일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괴로운 것은 자신입니다.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용서는 실제로 나를 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그는 아무 문제없이 즐겁게 잘 삽니다. 더 약 오르는 일이지요. 어떤 영화에서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그가 신에게 용서 받았다고 하는 장면에서 더 큰 분노를 사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물론 신이 용서해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중요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용서의 핵심은 같은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동정이라고도 합니다. 동정은 같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용서의 서(恕) 자도 한자를 나누어 보면 같을 여(如)에 마음 심(心)이 들어있습니다. 상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용서의 기본은 '그가 왜 그랬을까?'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용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는 가벼운 잘못에 해당하는 용서일 겁니다. 끔찍한 잘못에 이런 용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를 안긴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보다는 원수를 갚는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원수를 갚으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원수를 낳기도 하는 거겠죠.

원수에 대한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놀라움을 준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원수를 용서하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용서는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나 사랑이라니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가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답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풀이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답은 답입니다.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가슴에 담습니다. 죽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종교는 용서를 말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그러고는 원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놓고 싶습니다. (출처: 제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일본 연형극단 사할린주민들에게 2 작품의 연극 상연

2018년은 러·일 간 문화적 행사를 근간으로 하는 교류의 해이다. 이에 양국의 사회단체, 전문가와 전문조사단, 예술단체들이 참가하게 된다.

사할린과 일본의 인형극 배우들은 오래 전부터 상호 유익한 관계를 맺어왔다. 순회공연 교환, 축제 참가 등, 이러한 전망을 가진 해에 그 일환으로 사할린 인형극장 무대에는 러시아 인형극을 비롯해 일본 인형극들이 상연된다. 첫 번째 인형극은 예쁜 소녀의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도 조금은 슬픈 <어린 두루미> 동화극으로 2월 초에 상연할 예정이다. 올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일본의 <가게노코> 극단이 방문하여 '바람의 아이들' 공연을 사할린 지역에서 순회공연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일본 배우들은 전통 동요-놀이 토타로 제작한 <너의 등 뒤에 무엇이 있지?>란 놀이연극을 소개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가게노코' 극단의 상연은 일본의 아동문화와 아동복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일본 보건노동사회복지부로부터 상을 수상했다고 사할린 인형극장 측은 전했다.

## Японские куколь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ахалинцам два спектакля

2018 год объявлен перекрёстным годом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Его основой станут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ни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пециалисты и эксперты,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двух стран. Сахалинских и японских кукольников связывают давние плодотворные отношения. Это и обменные гастроли, и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ях. В рамках перекрестного года на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пройдут как российские, так и японские спектакли. Первой станет сказка "Журавушка". Эта красивая и немного грустная история о любви прекрасной девушки будет показана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В конце зимы на Сахалин приезжает театр "Кадзеноко". "Дети ветра" проведут гастроль по югу Сахалина. Японские артисты представят спектакль "Что у тебя за спиной?" В его основу легла традиционная детская песенка-игра. В 2017 году за эту постановку театр "Кадзеноко"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за выдающийся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детей и дет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ую вручает япон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 포로나이스크 주민들에게, 스포츠 박물관 설립에 협조 요청

<포로나이스크-아레나>종합보건체육센터의 직원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스포츠 역사의 복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관의 직원들은 종합보건체육센터 내에 스포츠 박물관 설립을 주도하며 포로나이스크 주민과 전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지방스포츠관리국과 체육기관의 활동으로 개최된 흥미로웠던 경기들과 사건들, 포로나이스크 스포츠맨들의 참가에 대해 회상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미래의 박물관 전시를 위해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포로나이스크 구역의 스포츠 역사를 말해 줄 물품, 스포츠 특성을 지닌 용품과 의복, 상패, 소장품, 옛 사진들, 출판물 등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박물관을 함께 설립해갑시다.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종합보건체육센터의 발레리 자이체브 회장은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기증품은 다음 주소에서 기다린다. 가가린 거리, 38아(<포로나이스크 아레나>종합보건체육센터). 문의 전화8-914-096-12-51.

## Поронайцев просят помочь в создании музея спорта

Работники ФОК "Поронайск Арена" просят жителей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мочь восстановить спортивную историю района. Сотрудники учреждения инициировали создание в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музея спорта. К поронайцам и тем, кто раньше проживал в районе, обращаются с просьбой вспомнить об интересных факта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ботой спор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спорт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роведени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и участия в них порона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ередать предметы, спортивную атрибутику и одежду, инвентарь, награды, старые фотографии, печатные издания и другие объ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историей спорта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в экспозицию будущего музея. Давайте создадим музей вместе. Будем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ны за помощь, — обращается к поронайцам директор ФОКа Валерий Зайцев.

Экспонаты ждут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Гагарина, 38а (ФОК "Поронайск Аре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914-096-12-51.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알립니다!

사할린주한인회는 2018년 2월16일(금) 16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 설맞이 행사**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75세 이상의 1세 분들을 초청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입장권은 2월 1일-2일 이틀간 한인문화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문의전화: 42-40-87

조직위원회

## 제 57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 1. 목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 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 시 : 2018. 4. 15(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2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4.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18. 1.9 ~ 2018. 1.31

나. 장소 :

교부장소	주소	전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6. 응시 수수료 : 300루블, 사진 2매(3\*4)

7. 시험결과 발표 : 2018. 5.24 이후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